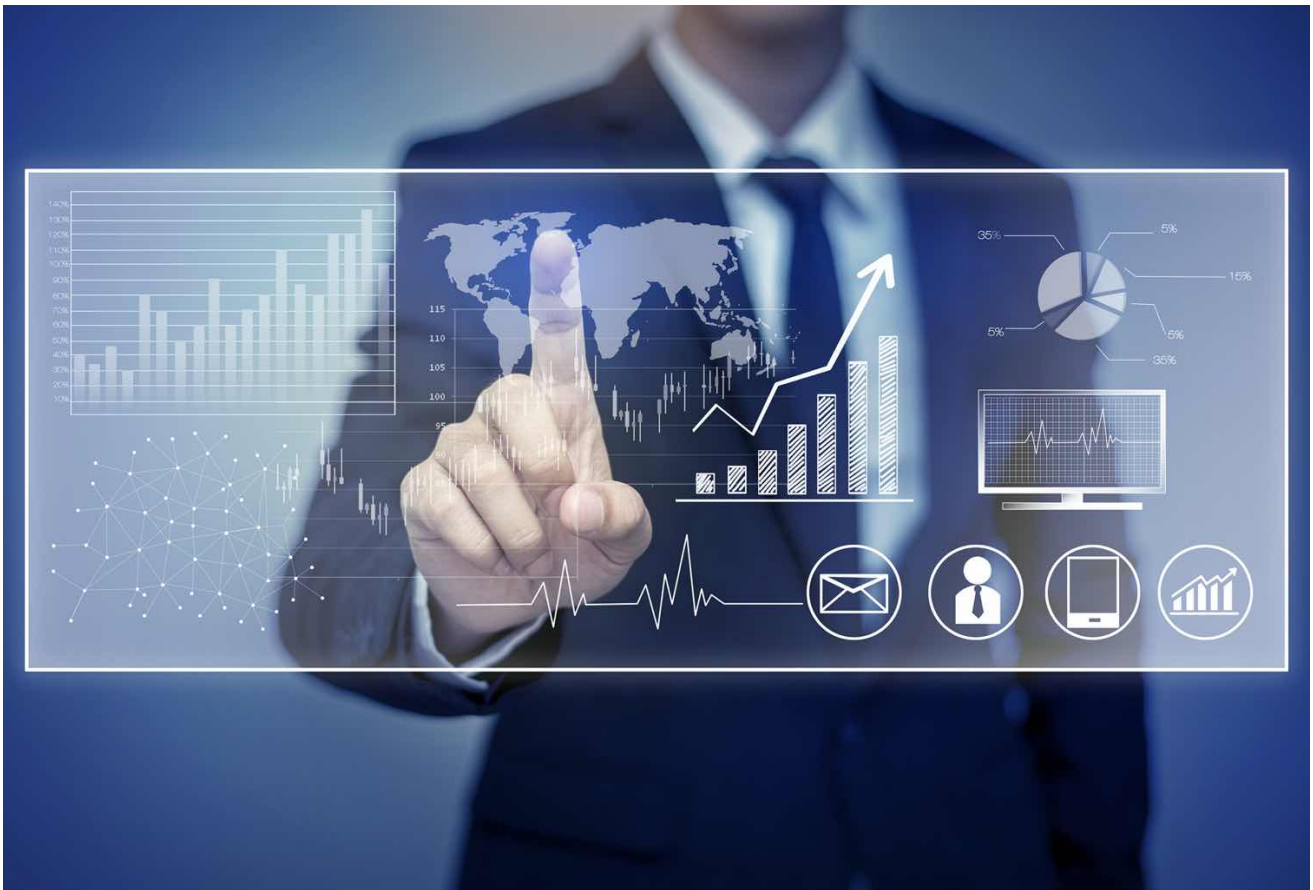


# numbers 제 22호



## 주요 내용

2019. 11.13

1. '당신은 끈대 입니까?', 끈대 현상 분석  
(2019 대한민국 트렌드 5)
2.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여론조사 종합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http://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mailto: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 2019 대한민국 트렌드

# 당신은, '꼰대' 입니까?

지난 11월 4일 뉴질랜드 의회에서 탄소배출제에 관한 법안 필요성을 역설하던 25세 여성 국회의원을 향해 기성세대 의원들이 야유하자, 그녀는 '오케이 부머(OK, Boomer)'한 마디로 야유를 잠재워 전 세계 젊은이들을 환호하게 했다. 부머는 베이비붐 세대를 일컫는 말인데 '오케이 부머'는 의역하자면 '네, 꼰대'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꼰대 문화는 세대 간의 단절과 갈등을 유발하고 조직 분위기를 깨뜨리며 한층 개인주의화를 부추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꼰대 문화가 사회, 혹은 직장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교회 역시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제 22호**에서는 '꼰대란 누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꼰대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 보면서 교회에서 꼰대 문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자 한다

###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1 당신은 '꼰대' 입니까?

## ‘꼰대’라는 말을 아십니까?

‘꼰대’는 새로 생긴 조어는 아니고 이미 오래 된 말입니다.

인터넷의 위키백과에 보면 ‘꼰대’는 본래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 많은 남자를 가리켜 학생이나 청소년들이 쓰던 ‘은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꼰대질**을 하는 직장 상사나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의미가 변형되었습니다. 즉 시대의 변화를 쫓지 못하고 자신의 과거 경험만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여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합니다.

‘꼰대’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양에서는 ‘부머’라는 말이 있는데 ‘부머’는 베이비 부머 세대를 비꼬아서 일컫는 말입니다. 이 부머가 우리의 ‘꼰대’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꼰대’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세계적으로 ‘꼰대’가 문제가 되는 것은 ‘꼰대’가 조직에서 특히 젊은 세대와 소통 단절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꼰대 문화를 잘 이해하고 그 오류에 빠지지 않는 것이 현대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세대 간의 존중과 소통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 아래 항목에 당신이 해당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꼰대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애들~’이라거나 ‘내가 예전에 ~~했을 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나아졌다’라는 말을 쓴다면, 그리고 남의 일에 미주알고주알 참견한다면 당신은 꼰대입니다

[그림] 가장 꼰대스러운 행동은?

(%)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 '2018 꼰대 관련 인식조사', 2018. 3

\*\* 조사 개요 : 전국 15~59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 ● ‘꼰대’의 특징, 비굴한 권위주의적!

- 꼰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권위주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쓸 데 없이 오지랖 넓게 남의 인생에 개입해서 참견합니다. 그들의 권위주의적 행태는 선택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들은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한 체 하지만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해집니다.

[그림] 권위주의적 태도 (%)

(%)

[그림] 약자와 강자에 대한 태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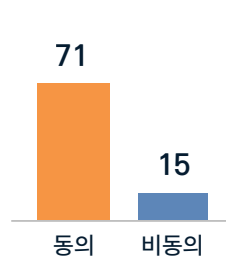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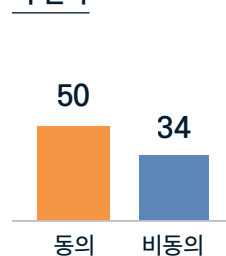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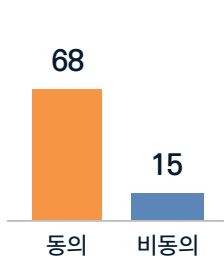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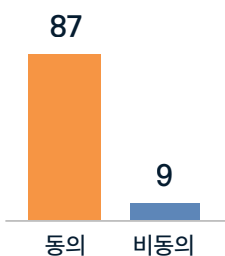
(%)

꼰대는 권위주의적이다

타인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이 꼰대다

꼰대는 후배나 부하 직원들 앞에서 강한 척 한다

꼰대는 강한 사람들에게 약하다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 '2018 꼰대 관련 인식조사', 2018. 3

## ● 꼰대의 특징, 자기 이익에 좌우!

- 꼰대에게는 소신도, 대의도, 도덕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꼰대는 자기의 뚜렷한 주관도 없이, 일의 성공보다는 남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정의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챙기고 이익 앞에서 도덕성도 별로 따지지 않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림] 권위적 태도 (%)

(%)

[그림] 약자와 강자에 대한 태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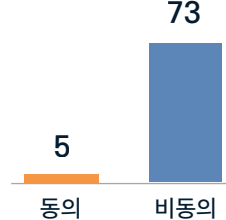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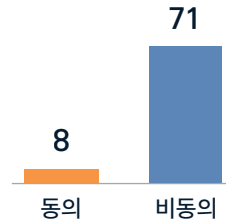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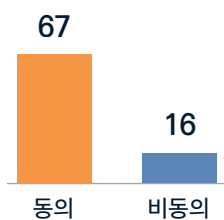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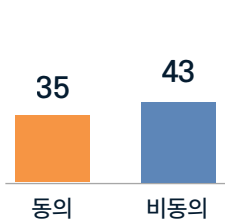
(%)

꼰대는 소신이 있다

꼰대는 일의 내용보다는 형식을 중요시 한다

꼰대는 대의를 위해 서라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다

꼰대는 도덕적이다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 '2018 꼰대 관련 인식조사', 2018.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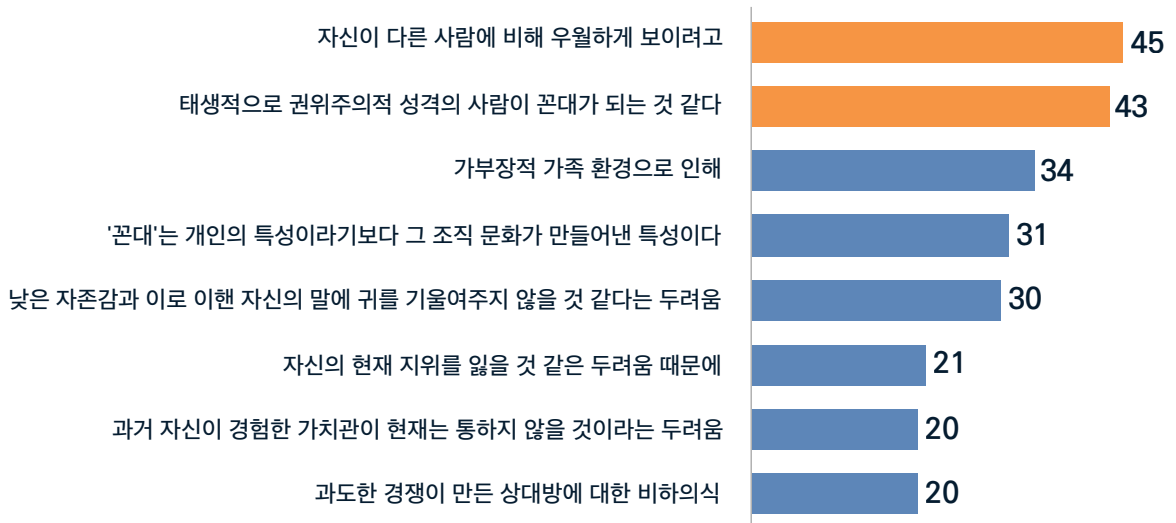
# 2

## 꼰대의 탄생 과시적 지배 욕구의 결과

- 그렇다면 꼰대는 어떻게 생겨날까요? 꼰대는 ‘태생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성격 때문에’(43%) 생기기도 하지만 ‘타인에게 우월하게 보이고 싶은’ 과시적 욕구 때문에(45%) 생기기도 합니다. 권위주의적 성격은 ‘가부장적 가족 환경’(34%) 때문에 형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시적 욕구’는 우월의식에 바탕을 두기도 하지만 낮은 자존감(30%)과 현재 지위 상실에 대한 두려움(21%)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자신의 약함을 감추기 위한 반작용 때문입니다.

[그림] 꼰대가 생기는 이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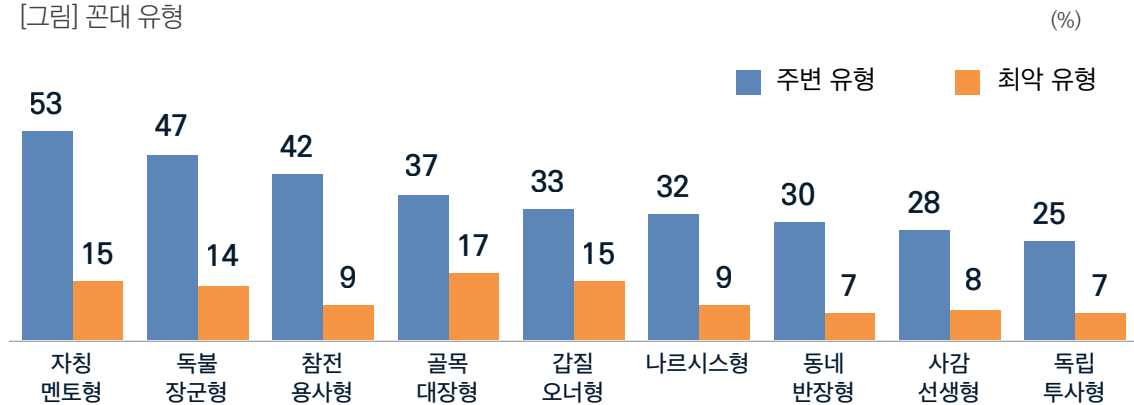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 '2018 꼰대 관련 인식조사, 2018. 3

### 3 끈대의 유형 중 최악 유형, '골목대장형'

- 끈대도 다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끈대에는 '자칭 멘토형' 끈대가 53%로 전체의 절반이 넘고, '독불장군형'도 47%로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악의 끈대는 '골목대장형'(17%)이고 다음으로는 '자칭멘토형'(15%)과 '갑질오너형'(15%)입니다.

최악 상위 3개 유형은 끈대가 자신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주입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림] 끈대 유형



\*자료 출처 : 두잇서베이(<https://dooit.tistory.com/629>), '끈대 문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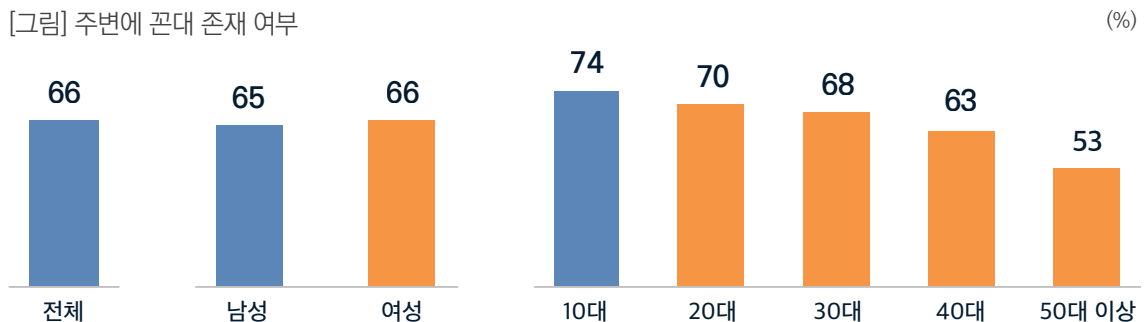
\*\*조사 개요 : 전국 14~99세 남녀 5,041명, 온라인 조사

자칭 멘토형	자신의 견해와 사고 방식을 강조
독불장군형	사회 변화나 세대별 차이를 무시
참전용사형	'우리 때에는' 같은 말투로 과거를 미화함
골목대장형	'까라면 까'식의 상명 하복을 강요
갑질 오너형	공사 구분 없이 행동하는 스타일
나르시스형	자신의 지위, 학벌등을 부각, 잘난 체함
동네 반장형	호구 조사하듯 사생활을 캐물음
사감선생형	웃차림, 화장 등 상대방의 외모에 시시콜콜 간섭
독립투사형	사생활을 희생해야 한다는 스타일

## 4 **꼰대, 주변 사람 중에 3명 중 2명은 있다고 인식**

- 우리 주변에 꼰대는 흔합니다. 66%의 응답자가 주변에 꼰대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 66% 정도로 비슷해서 성별로는 차이가 없고, 연령별로는 10대 74%, 20대 70%, 30대 68% 등 나이가 어릴수록 주변에서 꼰대가 있다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들 주변에 실제 꼰대가 많을 수도 있고 꼰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림] 주변에 꼰대 존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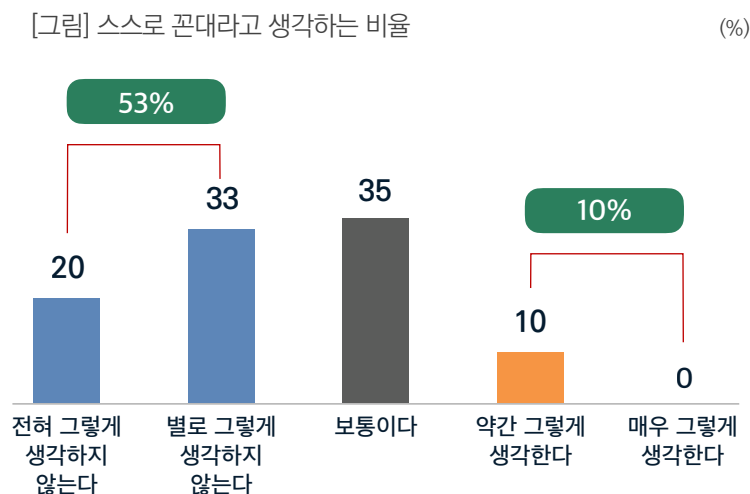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두잇서베이(<https://dooit.tistory.com/629>), '꼰대 문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 7

## 5 **꼰대, 주변에는 많지만 '나는 아니다', 53%**

- 주변에 흔한 것이 꼰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꼰대라고 인정하는 비율은 10%인데 비해 자기는 꼰대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비율은 53%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꼰대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것을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림] 스스로 꼰대라고 생각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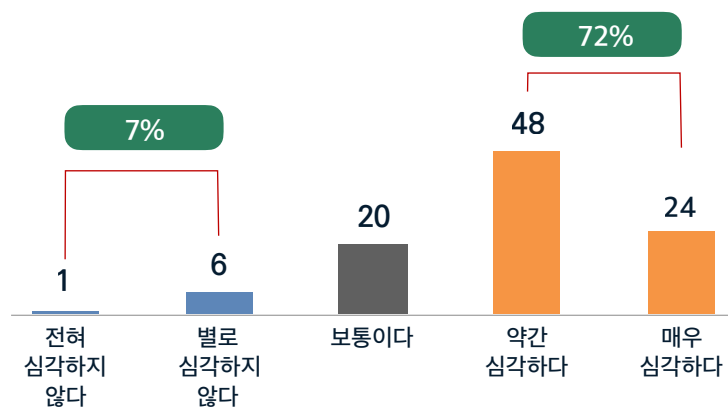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두잇서베이(<https://dooit.tistory.com/629>), '꼰대 문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 7

## 6 **꼰대 문화, '심각하다', 72%**

- 그런데 이처럼 흔한 꼰대 문화에 대해서 '심각하다' 72%, '심각하지 않다' 7%로서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꼰대 문화에 대해서는 '남자'(68%)보다 '여자'(78%)가, '40-50'대보다는 '20-30대'가 심각성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10대 71%, 20대 79%, 30대 76%, 40대 68%, 50대 이상 60%).

[그림] 꼰대 문화의 심각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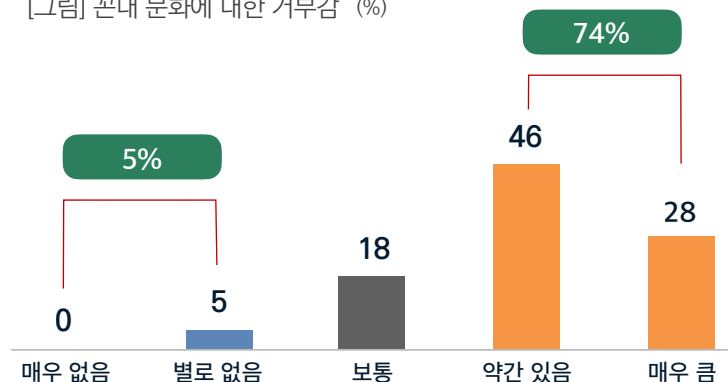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두잇서베이(<https://dooit.tistory.com/629>), '꼰대 문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 7

## 7 **꼰대 문화 '거부감 있다', 74%**

- 꼰대 문화는 심각하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꼰대 문화에 대해 '거부감 있다'는 응답은 74%로서 4명 중 3명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69%)보다 '여자'(79%)가 더 거부감을 갖고 있고, 연령별로는 '20대'가 매우 큰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10대 78%, 20대 83%, 30대 77%, 40대 71%, 50대 이상 61%).

[그림] 꼰대 문화에 대한 거부감 (%)



\*자료 출처 : 두잇서베이(<https://dooit.tistory.com/629>), '꼰대 문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9.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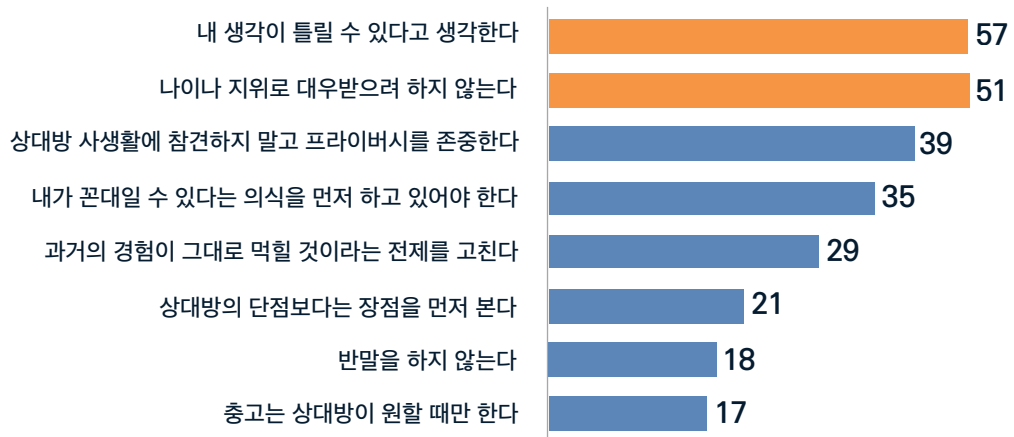


# 8

##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57%

- 그렇다면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나친 자기 확신을 버려야 합니다. 즉 자기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57%). 그리고 실력과 인품으로 대우를 받아야지 나이나 지위로 대우 받으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51%)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거나(39%), 내 경험을 과신해서도 안됩니다(29%).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꼰대일 수 있다는 자의식이 있어야 합니다(35%)

[그림] 꼰대가 되지 않는 방법 (%)



\*자료 출처 : 트렌드모니터(www.trendmonitor.co.kr), '2018 꼰대 관련 인식조사', 2018. 3

## 6 목회적 제언

과거에 끈대라는 단어는 아버지나 학교 선생님을 부르는 은어였지만 지금은 '나으로 갑질하는 남자 어른' 또는 '타인을 무례하게 하대하는 중년 이후의 사람'을 지칭하는 더 부정적인 단어가 되어버렸다. '끈대의 발견'이란 책에서 끈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함으로 끈대질을 한다고 말한다. 즉 '내가 누군지 알아?', '뭘 안다고', '어딜 감히', '내가 왕년에는', '어떻게 그걸 나한테', '내가 그걸 왜'. 이런 끈대의 특징은 '3척'이 있는데 '아는 척', '위해주는 척', '있는 척' 하며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특히 직장 상사, 교회 직분자 중에 이런 끈대가 많다(이효상, 교회건강연구원장).

끈대란 나를 중심에 두려는 '이기주의'와 나이·지위·경력에서 오는 '우월의식'이 결합된 사람을 가리킨다. 아마도 그런 의식이 교회에서 중직자로 오래 있다 보면 갑질로 드러나게 되고, 갈등을 일으켜 '교회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표현이 '너 몇 살이야', 요즘 젊은 것들', '어른이 말씀하면 예 해야지', '우리 교회 청년들은 어른을 봐도 인사를 안 해' 등등이다.

그런데 주변에는 끈대가 많이 있지만(66%) 나는 끈대가 아니라는 인식(53%)이 강하다(7쪽). 이는 명백한 모순이다. 본인이 끈대인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꽤 많다는 반증이다. 우리 국민은 한국 사회에 끈대 문화가 '심각하다'(72%)고 느끼고 있으며, 끈대 문화에 대해서도 74%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8쪽)

일반 사회보다 한국 교회가 더 고령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교회에서도 끈대 문화를 피해갈 수는 없다. 교회의 리더십인 목회자, 중직자들이 스스로 끈대 문화에서 벗어나야 젊은세대를 함께 품고 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의 미래는 '90년생'이 얼마나 교회에 남아주느냐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다. 그들과 소통하려면 끈대가 되어서는 안된다. 기성세대 특히 교회 중직자들이 끈대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찾아보자.

1. 인식의 전환이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나이나 지위로 대우받으려 하지 않는다
3. 요청하지 않는 조언을 하지 않는다
4. 자신의 과거를 현재의 상대방과 비교하지 않는다. (왕년에 나는...)
5. 말하지 말고 들어라. 답하지 말고 묻는다.
6. 나이(서열)로 구분하지 말고 능력으로 구분한다
7. 조언을 하고 그 뒤는 잇는다(왜 자기 말대로 하지 않았냐고 말하는 순간 끈대가 된다)

끈대 문화는 세대 갈등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세대 간 소통을 위한 이벤트(예컨대 '끈대 문화 추방 세미나' 등)를 열어 격의없는 소통을 하는 방법, 중직자들을 대상으로 '끈대 자가 진단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어찌하든지 세대 간 소통을 높이려는 시도가 중요할 것이다.

## 1 최근 언론 보도 통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 주요 여론 조사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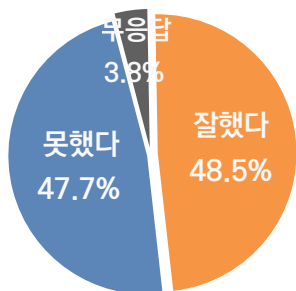
## 2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1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각 언론과 주요 조사 기관에서 현안 정치 의식 조사를 실시, 발표했는데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는 대통령 지지도,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 대해 각 기관의 조사 결과 값을 모두 합해 기관 수로 나누어 그 평균값을 구하여 편집하였다.  
또한 이번 정치 조사들에서 목회자들이 알면 좋을 데이터들을 정리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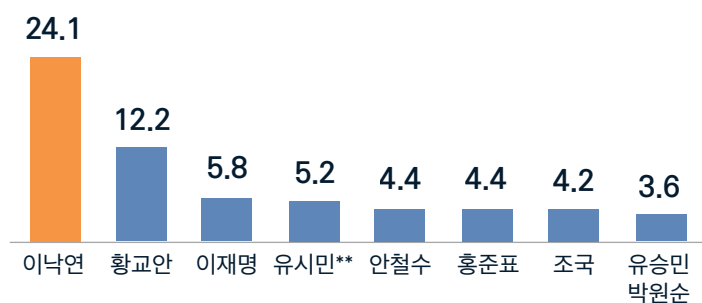
# 1 문재인 정부, 국정 평가 지지율 '잘했다', 48.5%

- 대통령 국정 평가의 평균값은 '잘했다' 48.5% '잘못했다' 47.7%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남
- 문재인 정부 반환점을 맞아 주요 언론 매체(7개)에서 실시한 정치 현안 조사 결과 중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의 평균값을 집계한 결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두 배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남. 이 두 후보 외 다른 후보는 5% 안팎의 낮은 선호도를 보임

[그림] 문재인 대통령 국정 평가 (7개 기관 평균) (%)



[그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상위 8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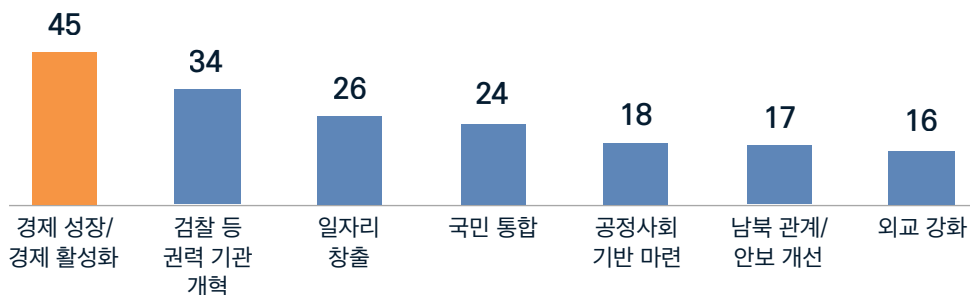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7개 기관(한국갤럽,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KBS, MBC, SBS),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각 1,000명, 2019.11.1-8. 유무선 전화 면접, 표본 오차 ±3.1%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4개 기관만 집계한 것임

## ● 문 대통령 임기 후반기 최우선 해결 과제, '경제 문제가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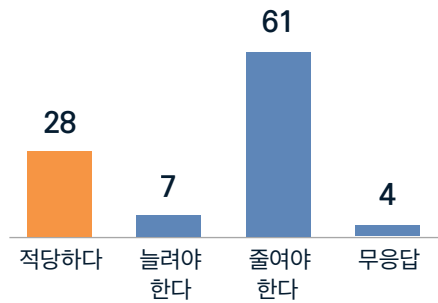
[그림] 문 대통령 임기 후반기 최우선 해결 과제 (중복 응답, 상위 7위) (%)



\*자료 출처 : 중앙일보, 2019.11.11., "내일 총선이라면...민주당 38.4% 한국당 28.6% 정의당 9.0%"  
<https://news.joins.com/article/23629232>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여, 1000명, 2019.11.6-8. 유무선 전화면접, 표본오차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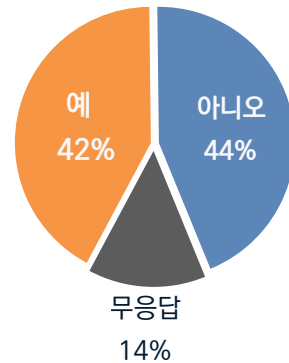
●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더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내년 총선 시 현역에게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44%로 절반 가까이 됨**

[그림] 현재 국회의원 수 평가 (%)



\*자료 출처 : 중앙일보, '내일 총선이라면... 민주당 38.4%, 자유한국당 28.6%, 정의당 9.0%', 2019.11.1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9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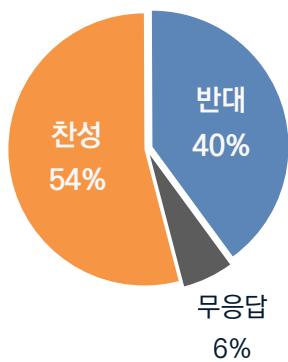
[그림] 내년 총선 시 현역 국회의원 "투표하겠다" (%)



\*자료 출처 : 매일경제, '민생 뒷전, 싸움판 국회에 10명 4명 현역 의원, 안 뽑겠다', 2019.11.07.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1/9204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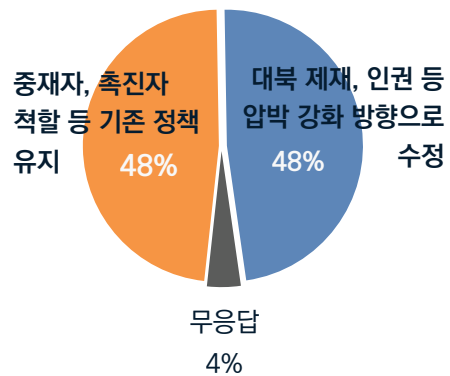
●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반대보다는 찬성이 더 많으며, 향후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 유지'와 '압박 강화 정책' 의견이 팽팽하게 맞섬**

[그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찬반 (%)



\*자료 출처 : 매일경제/MBN, '노믹스 퀘드 수정 목소리 커져...경제부터 살려라 압도적', 2019.11.07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1/920469/>

[그림] 향후 대북 정책 기조 (%)



\*자료 출처 : SBS 뉴스, '文 임기 반환점... 국정 운영 긍정 47.6%, 부정 49.6%', 2019.11.09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15753&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15753&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

# 2

## 언론 보도 기사 및 큐레이션

###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 [늙는 선진국, 느는 빈곤 노인](#)

동아일보\_2019.11.13.

“英 노인 8명중 1명 끼니 걱정... ‘정부연금으론 먹고살수 없어’”



#### [인권위 발표, 초중고 학생 선수 인권 실태](#)

한겨레신문\_2019.11.07

“초등학생 선수 40% 신체 폭력 당한 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해”



#### [2030의 스타, 핑수 열풍](#)

중앙일보\_2019.11.06

“알아서 할게요’, ‘잔소리 관두세요’... ‘선을 넘는 핑수, 2030 직장인 열광”



#### [인구 절벽이 가져오는 군의 변화](#)

중앙일보\_2019.11.06

“북핵만큼 두려운 인구절벽, 당장 내년부터 2개 군단 해체 돌입”



#### [향후 30년간 한국 가구 구성 변화 예측](#)

동아일보\_2019.10.29

“한국 부부+자녀 가정, 2045년엔 16% 그칠 것”

### 스토리가 있는 기사



#### [갈등\(葛藤\)을 푸는 만족\(滿足\)과 소통\(疏通\)](#)

경향신문\_2019.11.12

“막장 드라마’ 욕하면서도 열심히 보는 심리”



#### [‘보디 포지티브\(body positive\)’현상](#)

동아일보\_2019.11.11

“당신의 있는 그대로가 아름답다”



#### [동서 그룹 김상헌 전 회장](#)

매일경제\_2019.11.08

“9년 째 1250억 원... 보유 주식 나눠준 ‘커피왕”



#### [이 집은 누가 지었을까?](#)

조선일보\_2019.11.05

“내가 지은 집이야”

## 역대 주간 리포트 주요 내용

- 제 1호 | 인구 절벽, 그리고 개신교 인구 변화
- 제 2호 | 대한민국은 갈등 공화국(사회적 신뢰도, 갈등지수) | 종교 스위칭
- 제 3호 | 모바일 시대가 온다(개신교인 미디어 이용 실태) | 청년층 운세보기 | 황혼 이혼
- 제 4호 | 나홀로 Life, 나는 혼자여도 좋다 | 함께 일하고 싶은 리더
- 제 5호 | 다문화 가족,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다(이주 여성 실태) | 북한 비핵화 인식
- 제 6호 | 위기의 크리스천 대학생(대학생 종교 실태) | 불법 촬영(몰카) 실태
- 제 7호 | 하루 13명, 술 때문에 죽는다(음주실태) | 청년 취업 실태
- 제 8호 | 여름휴가, 어떻게 보내십니까(교회 수련회 통계) | 남성 육아 휴직
- 제 9호 | 유튜브 홀릭 | 한일 분쟁
- 제 10호 | 흡연, 성인 남성 하루 100명 죽는다 | 55세 이상 고령층 취업 희망자
- 제 11호 | 크리스천 4명 중 1명, 교회 안 나간다 | 한국인, 정신·심리 관련 조사
- 제 12호 | 북한이탈주민, 연 가구 소득 2,000만 원 미만 40% | 2019 대한민국 영향력 있는 인물 순위
- 제 13호 | 추석, 즐겁지만 여성에게는 힘든 명절, 89% | 2040 아빠 육아경험, 고령화 통계
- 제 14호 | 한국인,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있다 | 합계 출산율, 전국 초중생 방과후 학원 이용 실태
- 제 15호 | 한국인 행복도, '돈'에 과도하게 영향받고 있다 | 임금 근로자 연봉 상하위 격차 14.4배
- 제 16호 | 한국인 1일 37명 자살 | 우리나라 기부 참여율 40%(최근 1년간)
- 제 17호 | 장애인, 문화 활동 거의 못하고 있다 | 한국 부자 보고서 분석
- 제 18호 | 장애인 실대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만족도 높다!' | 미국 크리스천의 담임 목사 인식 조사, 한국 국가 경쟁력 순위
- 제 19호 | 한국 사회 혐오, 심각하다 96% | 100세 시대 인식조사
- 제 20호 | 특별판(1-19호) 종합 정리
- 제 21호 | 개신교인, 전광훈 목사 긍정적 평가 13% | 한국 사회 공정성 평가 조사

# 목회데이터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가 17 현빌딩 2층 | 대표 지용근

##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 기관

(재) CBS | 한용길 사장

(재) 한빛누리 | 김형국 이사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 김지철 이사장

(주)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 송인규 소장

## MOU 기관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문화선교연구원

## 후원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후원 교회, 기관, 개인은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후원 계좌: KB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문의: 02-322-0726,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 링크 → [클릭 하기](#)

##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mailto: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mailto: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jy0113@mhdata.or.kr](mailto:jy0113@mhdata.or.kr)